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질적연구*

박지현**

I 알기 쉬운 개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며, 그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종종 성인기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학교폭력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학교를 나온 청소년은 학교 내 또래들과 비교해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버텨내보는 시도를 하지만,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학교를 떠날 용기를 내게 된다. 하지만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이들의 경험을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중요하며,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경험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협력하여 생태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8082998).

** 서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frisca@seowon.ac.kr

투고일 / 2024. 6. 10.

심사일 / 2024. 9. 11.

심사완료일 / 2024. 9. 27.

I 초록

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내용',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의 본질적 구조'라는 두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 밖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생활 경험에서 60개의 의미단위로부터 17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5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됐다. 연구 결과로 나타난 5개의 주제는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몸부림침', '지옥같은 학교를 다녀보려 온 힘을 다해 버텨내봄',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학교를 떠날 용기를 내봄', '폭력을 벗어났지만 고통스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살아감', '아픔을 딛고 일어서 더 탄탄히 도약과 성장해 감'이었다.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경험의 본질적 의미는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생활 경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처한 상황과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부모, 교사, 상담자, 지역사회의 역할과 개입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해 경험적 자료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현상학적 질적연구

I. 서 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 ‘소년심판’, ‘펜트하우스’ 등이 최근 방영되면서 학교폭력 피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 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를 한 학생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피해 학생들은 제대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고교 자퇴 후 해외로 떠난 실제 사례(서울신문, 2023)가 언론과 SNS 등에 이슈화되어 보도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이 그 시기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나타나는 학교폭력 후유증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다. 피해 학생이 느끼는 무능감과 무력감, 주변 친구들과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스스로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거나 타인으로부터 고립당하게 된다. 김광수(2018)의 연구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학교폭력 보호조치 이후에도 또 다른 피해, 즉 친구들로부터 기피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졸업 때까지 버티기와 신체적 강화 또는 전학을 고려하며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직접 경험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윤명숙, 조혜정, 2008),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성인기까지 어려움을 지속되게 만든다(김명자, 2002). 김경석(2015)의 학령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겪은 성인의 심리현상 연구에서 학령기 시절에 겪은 학교폭력 피해는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내재 되어 학교폭력 피해 당시보다 오히려 성인이 되었을 때, 관계의 문제가 사회적 부적응을 동반함으로써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인 생활의 전 영역에서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게 된다고 보았다.

장혁진과 박영숙(2014)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청소년의 약 70%가 임상적 기준에 부합하는 고위험 우울증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소년 시기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심리·정서적 상태와 행동양식의 변화는 청소년의 인간관계 형성과 또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를 철회하게 되고, 학년 유급, 결석, 낮은 학업성취, 외로움 등의 경험으로 심리적, 정서적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교 부적응으로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김경석, 2015; 이종화, 2013; 임창성, 2019)까지 진행될 수 있다.

석미란과 장은영(2013)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외상경험과 현재의 정신의학적 문제,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경험 및 학업성적 스트레스가 중학생들의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2021년도의 경우, 전체 5,323,075명의 학생 중, 0.8%에 해당하는 42,755명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3)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학업중단에 대하여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9.5%로 나타났으며, 그중 학업중단에 대하여 생각한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5%에 해당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2%, 중학생은 3.7%, 고등학생은 1.2%로 응답하여 낮은 학교급별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살펴본 오정아, 김영희와 김정운(2014)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한 원망, 교사의 편견과 부정적 지지, 학업 부진과 교우관계 부적응, 무단결석과 가출, 강요받은 자퇴 등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은자(2015)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에 이르기까지의 배경 요인과 학업중단 직후의 경험, 그리고 학업중단이 참여자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현상학적 연구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학업중단에 이르기까지 폭력, 해체, 방임의 가정환경에서의 공감 결핍으로 인한 자기애적 외상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적개심과 왜곡된 공격성을 표출하고 있었다.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학업 중단을 선택했더라도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고 제시했다. 학력이나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제도권 내의 학교를 그만둠으로 인해 해방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상실 경험을 느끼거나,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 능력의 결여, 미래에 대한 기대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김영희, 최보영, 2015).

더욱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의 경우, 심리·정서적으로도 힘겨운 상태에서 감당해 내야 할 자신 삶의 문제들이 더욱 크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당시 청소년의 삶과 성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다수 진행되고 있는 연구 주제는 학교 재적응(김광수, 2018; 이진숙, 2012), 우울 등의 심리적 기제(김재엽, 정윤경, 2007; 김준범, 최서연, 2020), 잠재적 학업중단 의도(임창성, 2019; 장효정, 2018; 최상근 외, 2010), 학교폭력 피해의 영향 요인(이상균, 2005; 이은희, 손정민, 2011),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김지연, 강민철, 허미라, 2021; 이예은, 2022)등으로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 재학생이 아닌 대상의 연구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대학생(임정란, 2019), 성인(김경석, 2015; 전예림, 정지선, 2021), 다문화 청소년(이강호, 김하영, 2020; 이민술, 문국경, 2021)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소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연령대와 발달단계에 있지만 심리적·환경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는 미비한 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학교를 나오게 된다. 그 원인과 경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지원과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임인아(2020)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에 나타난 경험의 구조와 대처과정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업중단과정은 5단계, 학업중단 과정에서의 대처유형은 4가지로 정리하여, 학업중단과정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였다. 근거이론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평가하고 각 단계에 따라 개입하고자 하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학업중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전반적인 경험과 그들의 삶에서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탐색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하다. 현상학적 질적연구방법은 지각과 판단의 모든 복잡성을 가진 인간에 의해 경험되는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경험의 개인적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실재에서 그들을 알고, 대상자들을 도울 수 있다(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 중단을 선택한 청소년들의 경험을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스스로가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사태 자체’인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지 참여자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대에 포함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이나 퇴학 처분

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다(법제처, 2021). 학업중단(school dropout)이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를 학업중단으로 정의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자퇴와 퇴학의 경우를 말한다(여성가족부, 2017). 2012년도에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초,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라고 제시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현상’을 기술하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한동우, 2014).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자퇴하거나 정규 학교 과정에 있지 않은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고, 학교를 그만둔 과정을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공통적인 개념은 없지만, 학문적인 정의의 일환으로 노르웨이의 학자인 올베우스(Olweus, 1993)의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Olweus는 괴롭힘(Bullying)에 대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히는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3.9.15.](법제처, 2024) 제2조 제1항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학교폭력 실태를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 2023)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2021년 2학기~2022년 4월 응답시점)에 비해 소폭(0.2%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로 피해응답률이 나타나,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가 가장 높고, 이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다.

3.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려움과 이후 생활

매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3%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경우 앞으로도 이 폭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심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며 자신이 당했던 학교폭력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학업에 흥미를 잃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학교폭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주변 친구들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학교를 불신하게 되고, 타인을 왜곡되게 지각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학교폭력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데, 학교폭력 피해 당시보다 오히려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인 생활의 전 영역에서 그 후유증이 더욱 심화된다고(김경석, 2015). 김광수의 연구(2018)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 이후에도 또 다른 피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 상황에서 졸업 때 까지 버티기와 신체적 강화 또는 전학을 고려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관계성 문제로, 사회적 부적응을 동반할 수 있다. 김경석(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의 기억을 잊기 위한 다양한 중독 현상이 유발되어 중독 증상의 심화와 자살, 살해 충동이라는 심각한 병리 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잠재적 학업중단 의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높은 학생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도 취약한 심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데,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 또한 피해학생 후유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도 높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1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5대 정책영역 중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영역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0).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 없는 보호를 제시(국무조정실, 2023)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1) 연구자 준비

연구자는 상담심리학 박사로 사범대학 교직 필수 과목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을 2013년도부터 10년 이상 강의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자격으로는 한국청소년상담사 1급,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을 취득하였고, 연구방법을 강의하고, 질적연구 워크숍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 3명의 연구자문가를 모셨는데, 1명은 사회복지 전공 박사학위자로, 질적연구의 경험이 풍부하다. 2명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장으로 박사학위자와 박사수료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질적연구 워크숍을 이수하고 질적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 면접질문지 구성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생활 경험의 전반적인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형태로 면담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담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현상학적 경험의 탐구를 위한 질문으로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자문가 3인이 초안을 검토하여 1차 수정 과정을 거쳤다. 학교 밖 청소년 2인에게 수정된 면접질문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면담 흐름에 방해가 되는 단어나 문장에 대해 피드백을 받은 후 2차 수정하여 표 1과 같이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표 1
반구조화 면담질문지

영역	질문
학교폭력 피해 과정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던 상황은 어떠한가?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던 상황에서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던 상황에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추가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학업중단 과정에서의 경험과 의미	학교를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추가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학업중단 이후 경험	학교를 그만둔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학교를 그만둔 현재 상황에서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학교를 그만둔 현재 상황에서 힘든 것은 무엇인가? 추가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3) 면접 실시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한 면담은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반조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이용하여 참여자 별 3차례에 걸쳐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사전 승인(1040820-202306-HR-006)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했으며, 총연구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이다. 연구자는 인터뷰 시작 전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정보나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한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의 목적, 인터뷰 도중에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인터뷰 내용의 녹음 허락, 연구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가명 사용 등을 밝혔다. 인터뷰 장소 선택,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정할 때도 모두 연구참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카페에서의 대면 면접, 줌을 통한 화상면접으로 진행했다. 소요된 시간은 회기별 약 60분이었고 면담 후 소정의 금액(회기별 5만원)을 답례하였다. 면접 내용은 연구자가 녹음기 2대로 녹음했으며, 참여자들의 비언어적 메시지 및 특기할 만한 사항을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면담 녹음파일은 본 연구자가 전사했다. 이후 다시 한번 전사된 내용을 녹취파일을 들으면서 검토했다.

4)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표2와 같다.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교육기관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와 연관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로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중학교 이상에 해당하는 14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 case selection) 방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주로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문가를 통하여 10명의 사례를 추천받았으나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4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 6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에서 연구참여자의 수는 Creswell(1998)의 10명 이하의 참여자 선정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적용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16세 2명, 17세 2명, 18세 1명, 21세 1명이었으며,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중학교 2명, 고등학교 3명, 고등학교 미진학이 1명이었다.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공통되게 언어폭력이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이 5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기간은 1년 미만 1명, 1년 이상 4년 미만 1명, 4년 이상이 4명이었다.

표 2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나이	성별	학교중단시기	주된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피해기간	학업중단 후 경과	현재직업
참여자1	16	여	중2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폭행	6년	3년	없음
참여자2	16	여	중1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3년	3년	없음
참여자3	17	여	고1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6년	1년	없음
참여자4	17	여	고1	집단폭행,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강요	5개월	1년	없음
참여자5	18	여	고미진학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5년	3년	없음
참여자6	21	여	고2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4년	4년	없음

2. 자료분석

1) 자료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Giorgi(2009)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심층 면접을 하여 얻은 녹취한 원자료와 연구 메모, 현장 노트 등을 중심으로 4단계 분석 단계를 진행했다. 1단계에서는 6명의 면담 전사 자료를 여러 번 읽어가며 연구참여자가 보고한 경험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2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사 자료를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참여자의 언어를 반영하여 의미단위를 추출했다. 이때 연구자가 가진 기준이나 이해, 선지식을 배제하고자 가능한 참여자의 진술문에 집중하여 진술 문장에서 의미가 변환되는 지점을 ‘/’ 표시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3단계에서는 구분된 의미단위를 중심으로 선택적 글 읽기 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단위를 분리하고 해당 진술의 의미를 주제로 분리했다. 4단계에서는 언어적 변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분리된 진술문을 메모지에 나열하여 의미단위를 재분류하고 언어의 변형을 통하여 참여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진 가설과 선이해로 몰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적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문가 3명과 함께 공동작업을 진행했다.

2) 타당도 평가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Guba와 Lincoln(1994)이 제시하는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네 가지 평가 기준을 본 연구의 기준으로 적용했다. 첫째, 3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얻은 녹취한 원자료, 전사 자료, 연구자 메모, 온라인 플랫폼(줌)을 통한 녹음자료 등 다양한 자료수집을 통해 사실적 가치를 높이고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둘째, 중립성과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문가 3인의 검토를 통해 원자료와 연구의 전개 과정을 검토받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성요소 중 ‘학교를 탈출하기로 결정함’보다 ‘학교를 떠날 용기를 내봄’이 적절하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구성요소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몸부림침’에 있는 ‘오히려 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게 됨’의 의미단위는 하위 구성요소 ‘가해자를 벗어나려 애써봐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음’보다는 ‘점점 고립되어 혼자 견디며 외로워짐’의 하위 구성요소에 더 적합하다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를 수정했다.

IV. 연구결과

Giorgi(200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생활 경험을 이루는 본질인 60개의 의미단위로부터 17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이루었고 이로부터 5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했다. 분석 과정에서는 의미단위 도출, 하위 구성요소, 구성요소의 순으로 도출하였으나 제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의 순서로 제시했으며 의미단위는 부록에 따로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의 방식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개별적 경험 내용의 주제를 기준으로 자세하게 기술하는 ‘상황적 구조 진술’과 주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전체 연구자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일반적 구조 진술’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표 3.

구성요소 및 하위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1.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몸부림침	1) 수시로 협박과 감시로 24시간 공포 속에 떨었음
		2) 가해자를 벗어나려 애써봐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음
		3) 점점 고립되어 혼자 견디며 외로워짐
2.	지옥 같은 학교에 다녀보려고 온 힘을 다해 버텨내봄	1)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악물고 참아 옴
		2) 가까운 사람이 알게 될까봐 애를 쓰며 숨김
		3) 선생님의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을 얻게 됨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3.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학교를 떠날 용기를 내봄	1)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2)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해 더 위험해짐 3) 버티내기도 버겁고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탈출하려 함
4.	폭력을 벗어났지만 고통스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살아감	1)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해 죄스러워짐 2) 학교 밖 생활도 비참하고 버거워짐 3)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은 학교를 벗어나도 계속 이어짐 4) 치유되지 않은 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감 5) 과거 트라우마 속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음
5.	아픔을 딛고 일어서 더 탄탄히 도약하고 성장해 나감	1)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당당해져 가고 있음 2) 다양한 체험을 하며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함 3) 믿어주는 기관과 가족 덕분에 용기 내 살아감

1. 참여자들의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생활 경험에 관한 상황적 구조 진술

1)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몸부림침

참여자들의 학교 재학 중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경험은 크게 3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졌다. 첫째,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협박, 폭력 및 감시로 많은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으며, 학교가 아닌 곳에서조차 괴롭힘이 계속되어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트와이스 노래를 맨날 저한테 부르면서 춤추게 하고 막 그래서 제가 트와이스를 지금도 엄청... 왜냐하면 소리 나면 막 생각나고 그 밖에서도 만나면 쫓아오고 그냥 나날이 지옥이었어요.”
〈참여자 4, 1차〉

“그냥 그러한 내 모든 일상생활에 다 억제해 오는 느낌이 ...(중략)... 내 옆에 없지만 거의 내 옆에 지키고 감시받는 느낌” 〈참여자 6, 2차〉

둘째, 가해자가 무서워서 오히려 사과를 먼저 하거나, 가해자가 원하는 형태로 비위를 맞추어야 했고, 등·하교 시간 등에 어떻게든 가해자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다니는 노력을 했지만, 가해자에게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했다고 보고했다.

“애네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저한테 욕설을 하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애네가 어느 정도 좀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참여자 2, 1차〉

“한 명이 저희 집 근처에 살아 가지고 학교 가려고 버스 타면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매일 택시 타고 등하교했어요. 택시 타고 돈이 엄청 많이 깨졌어요. 그래도 무서우니까 등하교를 다 택시로” <참여자 4, 1차>

셋째, 학교폭력을 당하는 시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상처받게 되었고, 선생님과 관계마저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잘못이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갈수록 주눅 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점점 고립되어 혼자 견디며 외로운 시간을 버텨야 했다고 보고했다.

“중학교 올라가서는 제가 너무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친구들이 보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그 노력이... 해 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친구들이 반 친구가 없었고, 다른 반 친구들을 좀 사귀었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같이 다니기 싫다라고 제 생일날에 얘기했어요. 너무 싫다고” <참여자 5, 1차>

“옆 반 선생님이 또 저랑 되게 친한 젊은 쌤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반에 가해자가 2명 있으니까 또 자기 반 가해자를 챙긴다고 저를 썬까시는 거예요.” <참여자 4, 1차>

“처음에는 그냥 밝고, 좀 내성적이라도. 사람이랑 친해지면 잘 웃고 학교생활 그랬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초중고 내내 진짜 조용히 있었고 존재감 없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그냥 그게 심했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참여자 6, 2차>

2) 지옥같은 학교를 다녀보려 온 힘을 다해 버텨내봄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이 지옥과 같다고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학교에 다니려고 버틴 주제는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악물고 참아옴’, ‘가까운 사람이 알게 될까봐 애를 쓰며 숨김’, ‘선생님의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을 얻게 됨’의 3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나뉘어졌다.

첫째, 참여자들은 진학과 관련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졸업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보려 노력했다.

“전 솔직히 제가 개네들을 때려서 제가 미래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면 개네들을 더 원망해서 ...(중략)... 그런 애들 때문에 제 미래를 망치는 게 무서운 그래서 꺾꺾 참았어요.” <참여자 4, 1차>

“중학교 2학년 12월부터 정신과를 다녔고, 중3 올라가서 한 5월까지 학교를 그래도 좀 버텼어요.” <참여자 5, 1차>

“자퇴를 중3 때 생각은 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2년 버틴 게 너무 선생님이 아깝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너 졸업 시켜줄게. 지금 이거 아까워서 네가 또 검정고시를 보면 넌 또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참여자 5, 1차>

둘째, 부모나 가족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힘들거나 놀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눈치 못 채도록 애를 썼다. 참여자들은 이 시간을 버티기 위하여 특정 관심사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고, 극단적인 선택 속에서 버텨내기도 했다.

“맨날 너무 너무 힘든데, 이제 집이 그때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버지 돈 문제도 그렇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도 말을 못한 상태였어요.” <참여자 4, 1차>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불면증이 생기고, 자해랑 자살 생각을 좀 한다거나 그래서 막 혼자 울면서 집 근처의 다리 쪽에도 가고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참여자 1, 1차>

셋째, 선생님이 학교폭력의 상황에 대하여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관심과 격려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선생님께서) 그놈한테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엄청 인지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계속 그 친구랑도 면담을 하면서 이게 왜 잘못된 거고 개가 내가 그래서 뭘 그게 왜 불편한지. 이런 거를 선생님이 제가 개한테 그렇게 얘기를 못하니깐 대신 많이 해주시고 ...(중략)... 학폭위로 넘어갈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죠.” <참여자 3, 2차>

3)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학교를 떠날 용기를 내봄

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 대하여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이라고 표현했다. 자신과 가족, 믿어주시는 선생님을 생각해서라도 학교에 다니고 버텨보려 했으나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 피해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했다고 보고했다.

첫째,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부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장난 정도로 보고, 피해자의 두려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며, 가해자와 미분리, 화해에 대한 종용의 상황에서 학교에 있는 것이 힘들게 느껴졌다.

“진짜 그냥 장난친 것 가지고 왜 그래? 이런 소리도 듣고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중간에 얘기했을 때도 다들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선생님 그리고 개네들 다 그냥 모두가 가해자라고 봐요.” <참여자 4, 1차>

“수업 끝나고 아무도 없을 때 가해 학생들하고 저를 같이 불러서 참여자2가 이랬다는데 진짜야? 그거 먹고 사과해. 이런 식으로 그냥 앞에서 그냥 다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뒷감당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잖아요.” <참여자 2, 2차>

두 번째,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학교폭력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했고, 선생님은 가해자를 더 옹호하기도 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본인이 협박당하거나 고소당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더 무섭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큰 언니가 112에 신고해서 학교에 바로 경찰들이 다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더 지옥이었어요. ...(중략)... 그다음 날 아침에 등교를 하자마자 (가해자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복도에서 뺨을 시원하게 찹 때리는 거예요. ...(중략)... 며칠 동안 그러다가 이제 거기 학생 주임 선생님, 학주 선생님이 그 가해자 애들 편인 거예요...(중략)... 그 가해자 애들이랑 선도부실에서 맛있는 밥 사주고 그리고 개네들한테 너가 역으로 재 학폭위 가해자로 신고해 버려라. 그러면 재 진짜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제 친구들 불러다가 참여자4랑 놀지 마라 재 학교 폭력 당한 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이려고...(중략)... 제가 학폭 가해자로서 또 갔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행히도 무혐의 받았고 그냥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참여자 4, 1차>

셋째, 참여자는 심리적·상황적으로 학교에서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 되어 가족에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학교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계속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계속 생각했죠. 학교에 있었으면 아마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못 버텨서” <참여자 4, 1차>

“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진짜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퇴는 조금 슬프지만 같은 이유가 근데 탈출한 느낌이었어요. 살려고 한 거니까 그건 슬픈 이유도 아니에요. 만약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더 위험했을 건데 오히려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6, 1차>

4) 폭력을 벗어났지만 고통스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간혀 살아감

참여자들은 살고자 학교를 벗어났지만, 학교 자퇴 이후의 생활에도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폭력을 벗어났지만 고통스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간혀 살아감’의 주제에서는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해 죄스러워짐’, ‘학교 밖 생활도 비참하고 버거워짐’,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은 학교를 벗어나도 계속 이어짐’, ‘치유되지 않은 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감’, ‘과거 트라우마 속에 간혀 괴로워하고 있음’의 5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참여자들

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가족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가족 갈등이 발생하면 마치 자신이 죄인이 되는 죄책감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상황을 겪으면서 작은 언니가 공황장애가 같이 왔고 저랑 아빠도 그러셨어요. 엄마도 엄청 맨날 울었고 그나마 큰언니가 계속 굳건히 버티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재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고” <참여자 4, 1차>

“그냥 미안했죠. 내가 죄인이었어요. 엄마가 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신세 한탄 같은 걸 하셨어요.” <참여자 6, 1차>

둘째, 학교에서 받던 지원들이 중단되고,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이 힘들게 하였고,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부러워지기도 하면서 학교를 나온 것이 더 막막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교육청에서는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근데 정작 그러고도 그렇게 했는데도 학업을 중단을 해버리면 그 순간 교육청에서의 지원은 거의 끊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참여자 3, 2차>

“유튜브 보다 보면은 되게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어떨 때는 조금 반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왕따당하는 애들은 이유가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다수가 한 사람을 싫어하겠냐. 그 사람 이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해를 한 사람이 있어요.” <참여자 2, 2차>

“아무래도 인스타가 좀 문제인 게 솔직히 자기 힘든 거 말고 자기 행복한 걸 많이 올리잖아요. 인스타는 보여주기가 아니니까 그 학교에서 행복한 모습들 보면 부러워요. 급식 먹으면서 막 장난치고 반에서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보면” <참여자 4, 1차>

셋째, 학교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계속 진행되었다.

“길거리에서 저를 제일 많이 때렸던 애들 되게 자주 만나요. 얼마 전에도 한 번 만났어요. 울면서 도망갔어요. 아직 어렵더라고요.” <참여자 4, 1차>

넷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해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신이 안쓰럽고 애처롭다고 느꼈다.

“센터 처음 갔을 때는 되게 모든 사람한테 까칠하게 대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진짜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중략)... 그냥 좀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좀 답답하고 숨 막히고 언제쯤이면 벗어날까 생각해요” <참여자 4, 1차>

다섯 번째, 학교폭력이라는 단어에도 민감해지고 과거 경험 일들이 악몽으로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갇혀 있죠. 그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살면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가장 힘들고 아팠던 순간 얘기하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을 당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참여자 6, 1차>

“그게 꿈에 나오기도 하고 꿈에 악몽 꾸는 게 일단은 그 애들이 나온다거나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진짜 거의 자면은 악몽이 애들 일어났던” <참여자 1, 1차>

5) 아픔을 딛고 일어서 더 탄탄히 도약과 성장해 감

참여자들은 과거의 아픈 경험을 인정하고 학교를 나와서 사람을 만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과정 안에서 더 탄탄히 도약하게 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 더 탄탄히 도약과 성장해 감’의 주제에서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당당해져 가고 있음’, ‘다양한 체험을 하며 미래를 고민하며 준비함’, ‘믿어주는 기관과 가족 덕분에 용기 내 살아감’의 3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첫째, 새로 만남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으며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성장해 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학교를 그만둔 건 솔직히 저는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 왜냐하면 저한테는 저는 좋았거든요. 자퇴를 하고 학교를 나옴으로써 좀 더 성격이 밝아지고 당당해졌어요. 제 눈치를 볼 사람도 없잖아요. 누구든지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 하고 싶은 것도 찾았고 좋아하는 것도 찾았고 진짜 나를 좋아해주고 믿어주는 친구도 생겼고 그래서 저는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참여자 6, 2차>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제가 중2 겨울방학부터 병원을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저번 주에 병원을 갔을 때 담당 선생님이 이제 다음 달부터 약을 줄이자 라고 얘기하셔서 이제 길고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어요.” <참여자 5, 1차>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벌린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피해를지면 피해해졌지 성장할 수 없고 그냥 더 큰 세상에 빨리 나와서 되게 성장한 거죠.” <참여자 4, 1차>

둘째, 새롭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솔직히 학교에 있는 애들보다 더 폭넓은 경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 진로에 대해 더 확고해질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재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들 정도로” <참여자 4, 1차>

셋째, 가족과 꿈드림센터의 지지로 인해 용기 내어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 하였다.

“우선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다 잘 받아주시고 또 언니 오빠들도 새로 왔는데도 되게 거리낌 없이 다가와주고 같이 친해지자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막 귀엽다고 막내라고” <참여자 3, 1차>

“아버지는 곳곳하게 어떻게든 계속 변호사도 알아보셨고 다른 것도 알아보셨고 그런 부분에서 그냥 계속 도와주셨던 것 같고 ...(중략)... 제가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솔직히 가족들 영향도 많이 큰 것 같아요.” <참가자 4, 2차>

2. 참여자들의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생활 경험에 관한 일반적 구조 진술

연구참여자들의 체험을 기술하는 마지막 단계는 체험에서 변형된 의미단위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일관된 구조로 통합하는 단계이다(Giorgi, 2009). 이에 따라 앞에 제시된 경험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참여자들의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생활 경험의 구조를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기서는 앞서 정리된 5개의 주제들 간 상호연관성을 살펴보고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폭행 등 다양한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들은 버티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주위의 주요한 사람들에게 매달려도 보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야 했다.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몇 가지 공통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첫째,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몸부림침’이었다. 참여자는 학교생활에서 가해자로부터 수시로 협박과 감시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학교생활을 버텨야 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집이나 학원까지 찾아오는 가해자 때문에 24시간을 공포에 떨면서

지내야 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가해자를 벗어나보려 몸부림치며 애써 봤지만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부러 가해자 비위를 맞추며 먼저 사과도 해보고, 애써 부딪히지 않으려 택시를 타고 학교를 다녀봤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친구를 사귀어 보려 어설픈 시도도 해 봤지만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점점 고립되어 혼자 견디며 외로워졌다.

둘째, ‘지옥같은 학교를 다녀보려 온 힘을 다해 버텨내봄’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는 지금 생각해봐도 학교를 다녀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진로 진학에 불리함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까지 최소한 졸업이라도 해야겠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고 참았다. 또한 부모나 가족이 힘들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이중고가 있었으며, 그 시간을 자신의 취미생활에 매달려 시간을 보냈고 극단적인 자해, 자살을 시도하면서 버텨냈다. 이때, 선생님의 관심과 격려를 참여자가 어려움을 버티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셋째,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학교를 벗어나기로 결정함’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필사적으로 학교에 다니려고 버텨으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학교를 벗어나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을 장난 정도로 생각하는 선생님과 피해 학생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화해를 종용하는 등의 학교와 선생님의 무책임한 태도가 한 원인이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어 더욱 무섭고 불안한 생활을 이어갔다. 학교가 가해자를 더욱 옹호하거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교사는 일이 더 커질 것 같은 우려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역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억울함이 가중되었다. 가해자로부터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고 학교에 남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학교에서 탈출하게 된다.

넷째, ‘학교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지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아파하면서 지냈다. 가족이 속상하고 힘들어하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더 죄인이 되는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 학교를 나오게 되자 학교에서 받던 지원이 중단되고,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을 감내해야 했다.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부럽게 느껴지면서 학교 밖 생활이 비참하고 버겁게 다가왔다. 더불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해자를 보면 온몸이 굳어버리는 두려움과 가해자들이 계속 찾아와 괴롭히는 상황들은 학교를 벗어나도 이어졌다. 치유되지 않은 채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며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는 자신이 안쓰럽고 애처롭게 생각하며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했다. 또한 여전히 학교폭력이란 단어만 나와도 민감해지고 불안해졌으며 학교 재학 당시 겪었던 악몽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폭력을 당한 장소를 가지도 못하고 피해서 다니는 과거 트라우마 속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는 본인을 보게 되었다.

다섯 번째, ‘아픔을 딛고 일어서 더 탄탄히 도약과 성장해 나감’으로 살아났다. 새로 만난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었고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하려는 노력과 작은 도전의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새롭고 다양한 체험을 시도하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지지 기관인 꿈드림 센터를 알게 되면서 이곳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선생님의 지지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가족의 지지로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 더 탄탄히 도약과 성장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악착같이 버티는 선택을 하였다. 하지만, 그 버팀 속에서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더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탈출하는 선택을 하였다. 지금의 제도와 한계에서는 피해자가 더 피해를 겪고, 발버둥쳐도 도와줄 끈이 없다면 학교를 나오는 것이 살아낼 수 있는 기회였다. 학교를 나오고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과거의 트라우마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주변인들의 힘겨워함, 여전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등에 갇혀서 살아가는 아픔을 또 버텨내야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 갑자기 끊겨버린 공적 지원들 또한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었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은 상황들을 터닝포인트라고 표현한다. 매번 죽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면 또 다시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을 잘 했다고, 스스로 잘 버텼다고 기특해 하는 그들은 매 순간 온 몸의 힘을 끌어모아 생존을 위해 또 하나의 선택지를 고른다.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을 설명하는 일반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구조를 설명하는 주제 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 학교를 나온 이후 고통, 또 다른 선택, 성장과 도전의 주제는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순서대로 표시하였으나 그림에 제시된 것은 서로 시각적인 순서를 갖거나 인과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선택 상황에서의 선택지와 이에 따른 선택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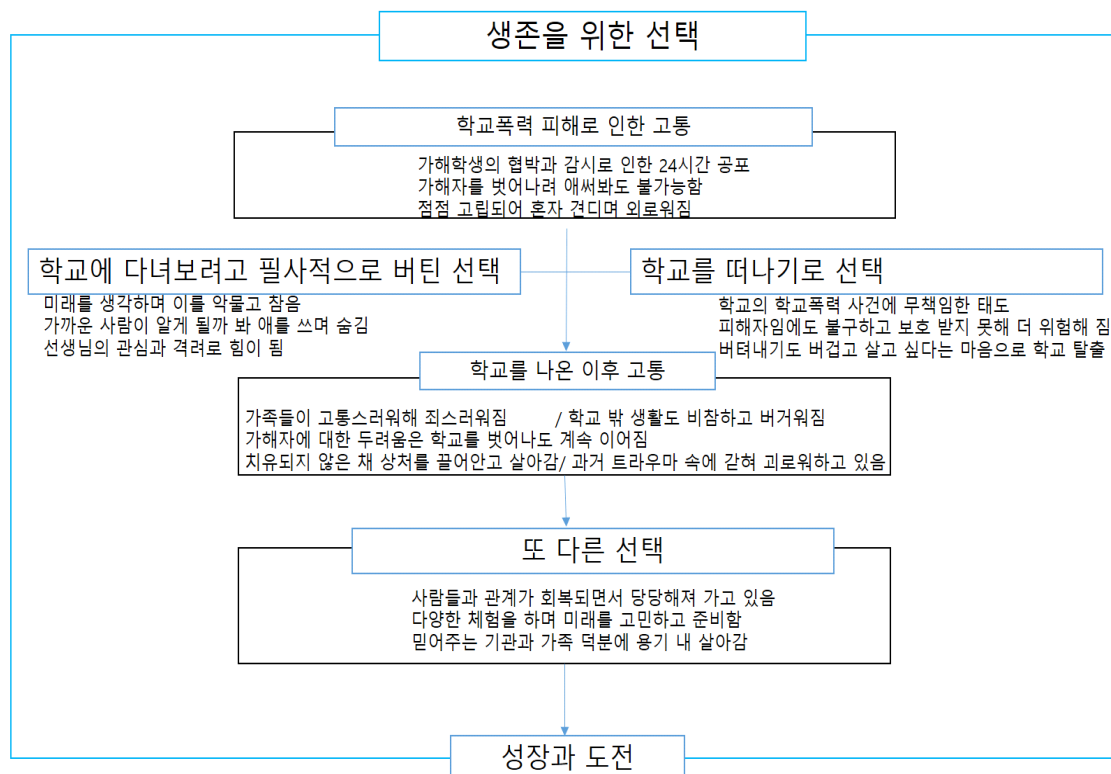


그림 1.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생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생활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교육기관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와 연관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학교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는 14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생활 경험에 대한 질문지 구성을 통해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수집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60개의 의미단위, 17개의 하위 구성요소, 5개의 구성요소이다.

이들의 구성요소와 하위 구성요소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공통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을 도출하여 일반화를 거쳐 요소 간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던 당시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몸부림침'의 주제에는 3가지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시로 협박과 감시로 24시간 공포 속에 떨어졌으며, 가해자를 벗어나려 애써봐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점점 고립되어 혼자 견디며 외로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심리상태는 불안이나 심리적인 위축 상태를 수반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데(박종효, 2007), 이러한 심리적 위축감은 스스로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게 된다(이은희, 손정민, 2011)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났듯이, 본 연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가해자에 맞추어 자신의 욕구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진행된다면 학교폭력 피해 상황조차도 본인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으로 자책감을 느끼게 되면서 더욱 고립되고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대체로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가치감이 낮으며 성숙하지 못한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이춘재, 곽금주, 2000)고 볼 때, 학교와 가정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감지하였을 때, 우선적인 예방 및 대응 조치가 중요하다. 피해 학생들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존중감 향상 및 사회기술 능력 향상 등 맞춤형 상담 및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3.9.15.](법제처, 2024)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접근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자의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피해자의 입장으로 확인하려는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유형의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심하게 보이지 않아 경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의 시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아 가며 버텼고, 자해와 자살의 극단적인 선택 하기도 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입장에서의 사안을 바라봐야 하고 피해학생의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분리와 이후 피해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피해학생의 입장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사안처리만으로 끝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의 피해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상처를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 지옥 같은 학교폭력 상황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 다니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버텨보려고 했다.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병원치료를 받아가면서 이 악물고 참아 왔고, 가까운

사람이 알게 될까 두려워 애를 쓰며 숨졌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힘이 되었던 지지원은 선생님의 관심과 격려였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는 지속적인 학업 유지하기가 어려워 중도 탈락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과 자살 시도의 행동으로 현실 도피를 모색하는 경우가 있다. 선행 연구(이상균, 2005; 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2007)에서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살 충동과 시도가 우려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의 관심과 격려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는 교사들의 상담 및 생활지도 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적·장기적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세 번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나오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필사적으로 학교에 다니려고 버텼으나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학교를 벗어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해 더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버텨내기도 버겁고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탈출하려 했다.

중학생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경험을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한 이종화(2013)의 연구 결과 역시 피해 청소년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로에 서 있을 때 큰 지지자원이 되기도 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학교와 교사이다. 학교의 부정적 풍토와 교사의 권위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는 학교폭력의 영향 요인으로(박지현, 2023) 나타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너무도 많은 업무에 지쳐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

네 번째, 연구참여자들은 탈출하다시피 학교를 벗어 났지만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지내야만 했다.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해 죄스러웠고, 학교 밖 생활도 비참하고 버겁게 느껴졌으며, 피하려고 했던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은 학교를 벗어나도 계속 이어져, 치유되지 않은 채 상처를 끌어안고 과거 트라우마 속에 갇혀 괴로워했다고 보고했다. 학업중단 후 학교 밖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바라봐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괄적인 학업지원이 아닌,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교육부(2024)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전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며 개인 성격특성, 위험문항, 외부요인, 정서행동문제, 기타 요인을 측정하고, 학교 내 지속관리 및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이루어진다. 여성가족부(2024) 또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학령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규 학교를 나오고 나니, 사회적 지원의 격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자해 및 자살의 위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학교폭력을 겪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그 외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가 주로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이 센터의 경우, 피해경험 학생만이 아니라 가해경험 및 비행 등의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는 청소년도 대상이 된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가해학생을 보면 얼어붙듯이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데, 꿈드림센터 내에서 가해자를 만나게 된다면, 믿고 의지하는 기관이면서도 두려운 기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폭력 등 심리적 문제로 인해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생활지도나 상담지원에 대한 전문적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는 지역 내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재학생만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하여 정서, 문화, 학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탈출하고서야 아픔을 던지고 도약해 나가는 노력을 하게 된다.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조금씩 당당해져 가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던 순간, 학교에서 버텨야 하는 순간, 학교를 나오기로 선택한 순간, 그리고 이후의 외상과 고통에서 버티고 도약하기로 선택하는 순간들 모든 순간이 생존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벗어나거나 용기를 내서 접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 지역사회, 국가는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불어 믿어주는 기관과 가족이 있어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직간접적인 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불안 수준이 높아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위비행을 하게 될 때, 이들이 지닌 불안감으로 인해 파생되는 지위비행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 요인은 가족의 지지에서만 조절효과가 검증(김미선, 2014)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가족의 영향력은 크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삶의 힘을 받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꿈드림센터 등의 사회적 기관과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생태체계학적 입장으로 체계적 시스템 구축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생활 경험에 대해 풍부하게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처한 상황과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학교를 나오기 싫지만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논의하였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나올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를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데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고,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부모, 교사,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과 지역사회와 향후 개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와 이와 관련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여자 청소년이 6명으로 남자 청소년이 참여하지 못했다. 성별 역시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의 비율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한다면, 청소년의 성장체성에 따른 차이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유형이 한 명의 집단폭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에 한정되어 있었다. 다양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풍부한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0).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 교육부 (2023).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 교육부 (2024). 우리 아이들 마음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알아보기. <https://www.moe.go.kr/> 에서 2024. 6. 5. 인출
- 국무조정실 (2023). 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보도자료.
- 김경석 (2015). 학령기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겪은 성인의 심리현상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수 (2018).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보호 조치 후 피해학생의 학교 재적응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1), 641-648.
- 김명자 (2002). 청소년의 학교폭력 행위 예측모형 구축.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208-1220.
- 김영희, 최보영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6(2), 145-175.
- 김재엽, 정윤경 (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요인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 5-28.
- 김준범, 최서연 (2020). 피해와 우울의 악순환: 학교폭력 피해가 우울의 종단적 매개로 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50, 1-24.
- 김지연, 강민철, 허미라 (2021).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다층 메타분석을 통한 효과 크기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139-145.
- 박종효 (2007). 집단따돌림(왕따)에 대한 이해: 발달경향과 정신건강의 관련성.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박지현 (2023). 제3판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서울: 박영story.
- 법제처 (2021). 청소년기본법. 법제처.
- 법제처 (20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서울신문 (2023.3.2). ‘학폭’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대입 실패·자퇴 후 해외로. <https://v.daum.net/v/20230302234502556>에서 2023. 3. 5. 인출.
- 석미란, 장은영 (2013). 중학생들의 학교중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아동기 외상경험, 학교폭력 및 정신의학적 문제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0(2), 329-348.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4).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https://www.mogef.go.kr/sp/yth/sp_yth_f008.do에서 2024. 6. 5. 인출.
- 오정아, 김영희, 김정은 (2014). 청소년의 학업중도포기 과정. **청소년학연구**, 21(5), 141-168.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윤명숙, 조혜정 (2008). 청소년의 폭력경험 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학교폭력, 증폭폭력 피해경험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295-329.
- 이강호, 김하영 (2020). 일반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실태 비교분석. **한국체육과 학회지**, 29(2), 797-808.
- 이민솔, 문국경 (20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의 관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103-125.
- 이상균 (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요인. **아동복지학**, 19, 141-170.
- 이예은 (2022).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자 (2015). **청소년 학업중단 경험 연구**. 백석대학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희, 손정민 (2011).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2), 149-171.
- 이정숙, 권영란, 김수진(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와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6(1), 32-40.
- 이종화 (2013). **중학생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경험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숙 (2012). **근거이론으로 접근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재, 박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임인아 (2020).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학업중단 과정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8(1), 243-267.
- 임정란 (2019).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자기표상 변화과정 탐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창성 (2019). **특성화고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잠재적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혁진, 박영숙 (2014).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의 정신의학적 문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5(4), 224-229.
- 장효정(2018). **특성화고 고등학생의 자아상태, 주관적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가 잠재적 학업 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예림, 정지선 (2021). 과거 다중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기 학교폭력 가해, 성인기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 경험의 관계: 심리사회적 변인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3(1), 117-135.
- 최상근, 양수경, 남기곤, 권경림, 연보라 (2010).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9). **2019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학업중단 생각 여부 및 생각 이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2&tblId=DT_ES2017_039&conn_path=I2에서 2024. 8. 9. 인출.
- 한동우 (2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업참여 활성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미래전략포럼 결과 발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Publications, Inc.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Conducted at Qualitative Research Center, Seoul. doi:10.2331/suisan.32.804.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doi:10.5860/choice.47-2874
-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y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ED.), *Handook of qualitive reseach*, 105-117. Thousand Oaks. CA: Sage.
-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Publishers.

ABSTRACT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out-of-school adolescents who dropped out due to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Park Jihyun**

This study aimed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of out-of-school youth who have been victims of school violence. To achieve this, the research focused on two key areas: the content of experiences of out-of-school youth who discontinued their education due to school violence, and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se experiences.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objectiv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out-of-school youth who had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nd had consequently dropped out of schoo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60 meaning units were extracted from th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regarding their school dropout process and subsequent life experiences, which were then organized into 17 sub-components and 5 main components. The five themes that emerged from the research were: "Struggling desperately with all one's might to escape hell," "Enduring with all one's strength to try attending the hellish school," "Summoning the courage to leave school with a desperate desire to survive," "Escaping the violence but trapped in the painful scars and wounds of the past," and "Rising above the pain to take a stronger leap toward growth and development."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experiences of out-of-school youth who dropped out of school due to school violence was derived as "an alternative choice for survival." This study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s and life meanings of out-of-school youth who have experienced school violence by examining their school dropout process and subsequent life experiences. It provides empirical data on the roles and interventions that parents, teachers, counselors, and the community should consider when working with out-of-school youth. This is achieved through the voices of those who have directly experienced school violence, offering valuable insights into the necessary considerations for supporting this vulnerable group.

Key Words: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ut-of-school adolescents, school drop out,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3S1A5A8082998)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eowon University

부록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 요약
1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몸부림침	1) 수시로 협박과 감시로 24시간 공포 속에 떨어옴	• 날이 갈수록 폭력이 심해져서 더 힘들어짐 • 학교폭력으로 지옥같은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수시로 협박과 감시를 받아 불안에 떨고 살았음 •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괴롭힘이 계속되어서 숨쉴 수 없었음
	2) 가해자를 벗어나려 애써봐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음	• 가해자가 무서워서 원하는 대로 비위를 맞춤 • 어떻게든 가해자와 부딪히지 않으려 피해 다님
	3) 점점 고립되어 혼자 견디며 외로워짐	• 선생님과 관계조차 불편해지고 무서워짐 • 친구를 만들어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상처받고 괴로워짐 • 오히려 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게 됨 •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주눅들여 존재감 없어짐
2 지옥같은 학교를 다녀 보려 온 힘을 다해 버텨냄	1)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악물고 참아 옴	• 진학에 불리해질까봐 이 악물고 맞으며 참았음 • 치료와 복약으로 마음을 달래가며 지냄 • 최소한 졸업이라도 해야 한다고 해서 버티어 냄
	2) 가까운 사람이 알게 될까봐 애를 쓰며 숨김	• 가족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함 • 부모나 가족이 힘들어하거나 놀랄까봐 두려웠음 • 공부나 음악에만 매달리며 시간을 보냄 •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냄
	3) 선생님의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을 얻게 됨	• 선생님과 상담으로 내 잘못이 아님을 인식하게 됨 • 선생님이 두팔 걷고 직접 학교폭력에 개입해줘서 도움이 됨
3 살아야겠다는 간절함으로 학교를 떠날 용기를 내봄	1)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학교폭력을 선생님이 장난 정도로 생각해 버림 • 교사가 피해자를 이해해주지 못해 아쉬움이 큼 • 가해자와 분리시켜주지 않아 더 위험하고 무서워짐 • 가해자와 한 공간에 두고 화해를 중용함
	2)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해 더 위협해짐	• 학교폭력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어 무섭고 불안함 • 학교가 가해자를 더 옹호해서 어이가 없어짐 •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더 속상함 • 교사는 일이 커질까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함 •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해 더 억울해짐
	3) 버텨내기도 버겁고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탈출하려 함	• 더 이상 학교에서 버텨내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림 • 학교에 남으면 죽을 것 같아 학교를 벗어나려 함 • 가해자로부터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었음 • 견딜 수 없어 가족에게 털어놓고 살려달라 말함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단위 요약
4 폭력을 벗어났지만 고통스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살아감	1)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해 죄스러워짐	• 가족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해서 눈치보게 됨 • 가족까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됨 • 가족 안에 갈등으로 이어져 더 죄인이 되어버림
	2) 학교 밖 생활도 비참하고 버거워짐	• 학교를 나온 것이 막막하고 더 비참해짐 • 학교에서 받던 지원조차 중단되어 힘들어짐 •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힘들 •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부러움
	3)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은 학교를 벗어나도 계속 이어짐	•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를 보면 움직여지지 않음 •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괴롭히는 아이들이 찾아옴 •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러야 할까 두려워 함 • 가해자를 다시 만날까 불안해하며 살아감
	4) 치유되지 않은 채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감	•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 어려움 • 죽음을 단순하게 생각해 아직도 자살과 자해를 시도함 •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못함 • 지난 날의 자신이 안쓰럽고 애처롭다 생각됨
	5) 과거 트라우마 속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음	•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살아감 •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민감해지고 불안해짐 • 그때 겪었던 일들이 악몽으로 생생하게 되살아 남 • 폭력을 당한 장소를 가지도 못하고 피해서 다님
5 아픔을 딛고 일어서 더 탄탄히 도약과 성장해 감	1)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당당해져 가고 있음	• 새로 만난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 •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어 가고 있음 • 새로운 도전에도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생김 • 학교 다닐 때 보다 더 성장하게 되었다고 여김
	2) 다양한 체험을 하며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함	• 새롭고 다양한 체험을 마음껏 경험하고 있음 • 학교 밖에서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찾았음 •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음
	3) 믿어주는 기관과 가족 덕분에 용기 내 살아감	• 꿈드림센터의 환영과 지지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함 • 가족이 도움이 될 정보나 지지를 해주고 있음